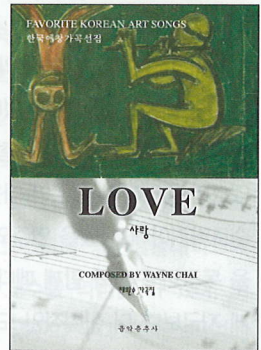




작곡가 **채완수**  
가곡집 『사랑』 출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쓴 작품들 중에서 선별하여 이번 가곡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니 그 동안의 것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품집은 ‘젊은 날의 나부터 현재의 나’가 담긴 저의 역사(histor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캐나다 크리스천 대학 및 대학원(Canada Christian College school of Graduate Theological Studies)의 교회음악과 교수이며, 한인학부의 학장으로 재직 중인 작곡가 채완수가 『사랑(Love)』이란 제목으로 가곡집을 출간하였다.

작곡가 채완수는 작곡과 기독교 교육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1984년 첫 예술가곡 독집을 출반했고, 같은 해에 첫 개인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KBS 2 FM 국군방송(정겨운 가곡)의 음악 해설자로 있었고, 1981년부터 1998년까지 개인 작곡 발표회를 포함하여 각종의 음악회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된 그의 작품들이 약 1백 회 이상 연주되었으며, 다수의 작품들이 출판, 녹음, 방송되었다. 1997년에는 한국작곡가회 경기, 인천지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1996년에 한국공연예술창작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 최초로 순수 공연 예술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한국 최초로 '멀티 미디어와 오페라의 밤' 공연을 기획, 제작, 감독, 연주했으며, 김동리의 『무녀도』를 대본으로 한 그의 판페라 『무녀도』가 1998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추천 오페라로 선정되었다. 1998년 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채완수는 토론토 심포닉 합창단 및 토론토 매스터 싱어스의 상임지휘자로 있으면서 교회음악 사역을 28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

“작년 겨울에 인터넷으로 한국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채광석 시인의 추모 문학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성을 가진 시인이라 궁금해서 기사를 보니 그분의 시 중에 〈사랑〉이란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를 보는 순간 시 자체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2시간 만에 선율을 작곡했습니다. 살면서 여러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이 시만큼 성숙한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반주까지 완성한 후 그 가곡을 채광석 시인의 유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미 고인이 된 그 시인을 만날 순 없었지만 오랜만에 좋은 시를 접

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가곡집 제목을 그 시 제목과 같은 『사랑』으로 붙인 것이다.

이번 가곡집 『사랑』에 실린 작품 중에서 정완영 시인의 〈가얏고 네가 울면〉이란 시로 작곡한 「조국」은 첫 작품이라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만큼 애착이 간단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직접 작사, 작곡 한 「농무」는 대전 MBC FM이 88 서울 올림픽 한국대표 가곡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한국의 문화를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지만 한국어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가곡, 프랑스, 독일 가곡의 가사는 영어로 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어는 자체로 쓸 수가 없어요. 한국어 발음대로 영어로 쓰는 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고, 영어로 번역한 가사를 넣으면 한국어가 지닌 아름다움, 맛을 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뜻을 이해시킬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악보집에는 영어 가사도 넣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믿지 않지만,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윈의 진화론처럼 음악이 진화해 왔다는 채완수는, 과거의 것은 미래에 새로운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 잠재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음악계가 더욱 적극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Nationalism)인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어법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1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는데, 예전에 비해 우리 가곡을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 작품이 창작되면 연주자들도 새로운 도전을 해줘야 발전이 가능하지요. 열악한 환경만 탓하지 말고 그러한 정신을 지켜나가는 연주자와 작곡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글·배주영 / 사진·김석령